

<쌍용자동차 범국민대회 영상메세지>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분들께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4년이 지나면서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 종단은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물 네분의 고귀한 목숨에도 슬픔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최근 경영면에서 쌍용자동차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에 희망퇴직 및 정리 해고자가 이제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리고 합니다. 이는 정부와 회사가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를 쌍용자동차를 아끼고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간곡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김정우 지부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원하던 일터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단은 쌍용자동차 노사문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으로 해결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